

2026 투쟁속보 15호

인천공항 현안 대책 요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 발행일 : 2026년 6월 19일 (금)
- 발행인 : 정안석 지부장
- 대표전화 : 032-743-0053



6. 19 민주노총-중부지방노동청장 면담 성사! 보안 교육생 이슈, 산재 등 인천공항 핵심현안 해결 촉구!

"인천공항 중대재해!

원청 인천공항공사의 책임을 물어라!"

인천공항지역지부 정안석 지부장은 보안과 여객 미관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통제하고 자회사에 책임을 떠넘겨온 공항공사의 갑질을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개선의 진짜 책임이 원청에 있음을 명확히하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지원을 즉각 실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동청장은 그동안 자회사가 법적 책임을 떠맡아왔지만 원청의 포괄적 책임이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며 유사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보안자회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육생 이슈에 대해서도 현안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수경비원의 입사 전 무급교육 문제는 인천공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특수경비원이 같은 문제에 처해있음을 직시하고 장관 등 윗선에 보고해 원청이 교육시간에 예산을 추가 편성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낙하산으로 내려와 인천공항 공사 눈치만 보며 문제해결에 무능한 자회사 경영진 또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입사 전 교육생 무급교육 문제!
원청 인천공항공사가 예산 편성하라!"**

인천공항 정기주차권 관련, 불이익 없도록 지속 협의 중!

정기주차권 개선안 관련하여 지난 투쟁속보를 통해 알린 바와 같이, 개선을 핑계로 자회사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천공항 이용객의 편리한 공항 이용과 직원 출퇴근 권리 보장을 위한 해법은 '교통비 지급', '통근버스 운영', '직원 주차공간(주차타워, 청사주차장) 제한없이 전면사용'입니다. 직원 정기주차권 관련 합리적 개선안이 시행되도록 끝까지 대응하겠습니다.